

SFAC Issue paper_Culture + Policy

서울문화재단 [문화 + 정책] 이슈페이퍼

Vol. 2025-2 (2025.02.12. 발간)

『순수예술 논쟁과 정책의 용어 선택 전략』

_ 예술 앞뒤로 붙는 말들의 정책적 의미에 대하여

Vol. 2025-2 (2025.02.12. 발간)

『순수예술 논쟁과 정책의 용어 선택 전략』

_ 예술 앞뒤로 붙는 말들의 정책적 의미에 대하여

작성자: 김해보(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이번 이슈페이퍼는 <순수-기초 예술 지원정책에서의 적절한 용어 선택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예술 앞뒤로 붙는 말들의 정책적 의미를 깊게 탐구하는> 긴 이야기입니다.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선 <순수예술에 대한 논쟁>과 <정책 언어의 한계에 대한 이해>라는 두 개의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정책 언어 안에서 예술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시작으로 사람들이 예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술철학자 래리 사이너는 “순수예술이 하나의 사회적 혹은 문화적 복합체로서 출현하는 과정을 추적”하여 “고대 그리스에는 순수예술이라는 말이 없었다”는 첩자로 시작하는 책을 쓰고는 『예술의 발명(The Invention of Art)』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술지원 정책의 일선에 있었던 행정가는 소위 보수-진보 정권에서 예술이라는 말 앞에 붙는 말이 순수-기초로 변갈아 바뀌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무엇이 예술이냐도 충분히 논쟁적인데 그것에 순수나 기초를 붙이고 적절한 지원 대상을 골라내는 것은 투쟁에 가깝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술을 논하면서 우리말이 아니라, 서양 귀족들의 필요에 의해 발명되었다고 하는 “Art”라는 말과 개념을 일본 지식인들이 수입하면서 만들어 낸 “藝術(예술)”이라는 말로 혼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과 개념과 현실이 서로 공유되지 못하고 논쟁은 공전합니다. 이참에 사전과 법령과 통계에 정의된 예술이 어떤 의미와 현상을 담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예술>이라는 말의 뜻을 그 연원을 살펴서 논쟁하다 보면 좀 허망하기도 합니다. 결국 어느 시대 누구의 생각을 어떤 언어로 표현한 <예술>을 이르는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이 글에서는 19세기 말~20세기 초 무렵 우리나라에 <Art>의 번역어로서 예술 또는 미술이라는 말이 들어왔던 시절의 풍경 몇 컷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1세대 서양화가 중 한 사람인 김찬영(金瓊永, 1893~1960)이 “미술은 요술(術)의 같은 부류”라고 생각한 순사군(巡査君)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윤세진, 2008)는 얘기는 흥미롭습니다. 프랑스인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이 3,821종의 조선 도서를 수집하여 발간한 『韓國書誌(한국서지)』(1869)에서 예술류(藝術類)는 총 9부 중 제7부 기예류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고, <서지 2575. 帝王遺像(제왕유상)>이라는 채색도 외에 기증기 등 온갖 기구 도판들로 이루어진 <서지 2564. 當無有用(당무유용)>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제에서 당시 “백가예술(百家藝術)”이나 “육예(六藝)”라는 말을 썼던 조선인의 예술에 대한 관념과 말이 지금 한국인과 다르지만 오히려 기술과 예술의 뿌리를 하나로 보고 Art라는 말을 썼던 유럽인들의 인식과 오히려 비슷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호완은 『우리말의 상상력』(1991)에서 서양 철학자들이 언급하는 예술의 기능과 본질을 모두 담고 있는 순 우리말 <그림>의 원래 뜻을 풀어줍니다. “그림과 그리다”는 말에는 이미지를 그리는 것 뿐만 아니라 가상의 관념을 머리에 떠올리는 것과 그것을 갈망하듯 그리워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예술>에 대한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려면, <藝術> 또는 <Art>라는 말로

표현되었던 인간문화 현상에 대한 몇몇 (특히 서양인) 학자들의 주장에 기댈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술>이라는 말 안에 담아서 전하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이 2022년에 개정되면서 게임과 애니메이션까지 (문화)예술로 명시되어서, 이제 순수나 기초라는 말을 어떤 예술에다 붙여야 할지 더욱 난감해졌습니다. 예술계 안에서도 소위 <순수예술>이라는 말로 대중적, 상업적인 것과 차별화하려는 주장이 널리 동조되지 못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조윤범(신동아, 2010)은 “비발디의 ‘사계’ 대중음악인가, 클래식 음악인가”는 질문을 던지면서 “18세기의 고전파 음악은 이전 음악보다 더 ‘대중적’인 음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쇼스타코비치가 행사용으로 작곡한 ‘페스티벌 서곡’은 순수음악이 아닌가? 또 대중음악 작곡가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작곡하는가? 영화음악이나 게임 음악은 어떤 범주에 넣어야 하는가? 스타크래프트의 웅장한 사운드트랙은 대중음악인가, 클래식 음악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말대로 이 분야가 오늘날 수요와 공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음악인데 소위 순수 음악가들에게 이를 멀리하게 할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인간이 선사시대부터 행해 온 행위들 중에서 지금 예술이라는 말로 구분되는 것들 중에서 다시 “순수예술”을 골라내었습니다. 이때 순수한 예술을 골라내는 기준은, “생각의 감옥”이 아니라 소통을 위해 선택한 “말의 새장” 안으로 예술이라고 인식한 현상들을 집어 넣고 의미를 부여한 사람들의 관념이 만듭니다. 순수예술을 나누는 기준으로 예술성, 영리성, 대중성, 정치성, 자율성 등이 주로 동원되지만, 어느 것 하나 합의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시대와 입장에 따라 그 순수함의 방향도 달랐고 표현하는 말도 달랐습니다. 우리는 유럽 학자들의 예술관에 기대어 순수예술을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 공자가 “제자들이 왜 시를 배우지 않느냐!”며 던진 충고의 말 속에서 지금 순수예술 논쟁에 필요한 모든 단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춤”, “놀이”와 같이 인간의 예술적 행위를 표현한 우리말에 스며 있는 상상력과, 한자 문화권에서 藝術이라는 말에 담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좀 무의미할 수도 있는 순수예술 논쟁에서의 뜻밖의 소득입니다.

순수함에 이르는 세 가지 방법으로 빼기, 더하기, 나누기를 제시해왔습니다. 생명 없는 혼합물에 대해서는 물질의 순도를 높이기 위한 빼기식 접근이 일반적입니다. 생명이 있는 주체의 삶의 산출물 순도를 높이는 방법은 무언가를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기적인 생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조건을 더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나아가 사회적 존재로서 의사소통 후의 순수함을 경험하려면 서로 대화에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공유하여 나누고, 의도적으로 숨긴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순수하게 예술을 지원하는 정책”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순수하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순수예술이 구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술을 지원하는 “순수한 예술정책”일 것입니다. 순수예술을 위한 순수한 예술 정책이라면 그 지원 대상이 되는 예술은 넓게 정의하고 보다 넓은 가치 확산 채널을 만들 수 있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술의 가치는 사람의 마음과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일로 바뀌는 데는 그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이끄는 “제약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론생물학자 스튜어트 A. 카우푸만이 제시한 “제약 일 순환(constraint work cycle)”으로 설명해왔습니다. 사회적 존재일 수 밖에 없는 예술이나 예술가는 사회 안에서 일을 해야 존속할 수 있습니다. 예술의 본질적 가치가 세상을 바꾸는 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자기 공간 안에서만 완전히 순수하고 자유롭게 노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 규칙이 있는 “판” 위에서 놀아야 합니다. 그 판을 깔고 예술가를 판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정책의 언어가 하는 일, 즉 “제약조건” 만들기입니다.

그 판에서 노는 예술의 순수함 중 무엇을 지향하든지 간에 그 순수함은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와 나누기 방식으로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진흥과 순수예술진흥을 무조건 대척점에 놓고 구분하는 것이 예술을 위하는 순수한 정책이 취할 입장이 아닙니다. 예술가와 예술이 만나서 더 왕성한 활동을 통해 창작물의 순도를 높이도록 하는, 소위 더하기식 접근에 필요한 것은 자원과 다양성을 제공할 넓은 시장, 그리고 주체의 활동성을 높일 자율성입니다.

“OO 예술 ◇◇”정책을 예를 들면, “순수 예술 진흥”과 같이 예술의 앞뒤로 붙는 정책언어는 예술이 공공자원이 주는 에너지를 얻어서 일로 바뀌는데 필요한 제약조건을 만듭니다. 정책언어는 예술 앞에 OO를 붙여서 정책 행위 대상을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예술 자체가 명확하게 정의될 수 없는데 그 논쟁적인 개념을 더 좁고 명확하게 정의해서 해당 정책의 정확한, 또는 비난받지 않게 지원 대상을 골라내는 과정은 논쟁의 연속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그것으로 ◇◇하려고 했던 뒤의 행위에 쓸 에너지가 소진되거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모호하게 이것저것을 다 하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즉 예술 앞에 붙여서 뭔가를 골라내는 말보다 뒤에 붙여서 실천의 방향을 명확히 하는 말에 정책적 의미를 더 크게 두는 것이 말의 힘을 빌어서 예술의 가치를 일로 바꾸는데 효율적인 언어 선택 전략입니다. 이것은 순수 또는 기초 예술을 위하는 길은 예술가의 사회적 경로와 예술작품의 유통경로를 더 넓게 만들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와도 통합니다. 기초예술이든 순수예술이든 Ai 예술이 판치는 시대에 인간의 예술로서 공공정책이 소중히 지켜 내야 할 것입니다.

[목 차]

0. 예술의 발명 vs. 정책언어의 선택

1. 예술의 정의 변화와 순수-기초예술 지원정책 논쟁들
2. “예술”이라는 말 _ 예술의 사전적, 법률적, 통계적 정의
3. “예술”이라는 관념 _ 예술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
4. 동아시아에서 “Art”가 “藝術”로 불리게 되던 시절의 말과 생각들
5. “원시예술”부터 “Ai예술”까지, 예술이라는 활동들의 범주화와 수식어 붙이기
6. 예술 앞에 수식어들을 붙인 사람들이 주장하고자 했던 것들
7. 합의되지 못하는 순수성 논쟁들
8. 순수함에 이르는 세 가지 방법 : 빼기, 더하기, 나누기
9. 예술창작과 문화산업 진흥 법령에 이미 들어있는 정답
10. 예술의 에너지가 말의 힘을 빌어 일로 바뀔 수 있는 조건

☞ 분석에 사용된 기사들, 보고서 원본, 기초분석 자료 등은 문화+정책 정보서비스 텔레그램 이슈별 채널(예술 앞에 붙은 말들의 정책적 의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제별 정보스크랩 채널은 당분간 계속 관련자료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채널 구독 링크 : <https://t.me/+zbbBVdFe70s3Mjk1>)

『순수예술 논쟁과 정책의 용어 선택 전략』

_ 예술 앞뒤로 붙는 말들의 정책적 의미에 대하여1)

(김해보, 2025.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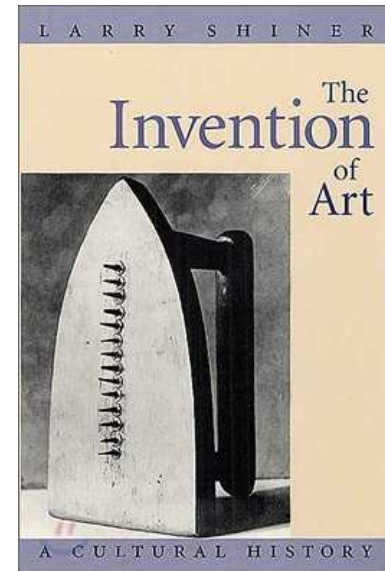
0. 예술의 발명 vs. 정책언어의 선택

미국 예술철학자 래리 샤이너(Larry E. Shiner)는 “순수예술이 하나의 사회적 혹은 문화적 복합체로서 출현하는 과정을 추적”하여 “고대 그리스에는 순수예술이라는 말이 없었다”는 챕터로 시작하는 책을 쓰고는, 『예술의 발명(The Invention of Art)』²⁾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는 자연사박물관에 있던 아프리카 인물상과 가면들이 시카고미술관으로 자리를 옮기자 갑자기 (순수)예술로 인식되는 과정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순수)예술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고대의 것도 아닌 18세기의 역사적 구성물이었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폴란드 미술사가 타타르키비츠(Wladyslaw Tatarloewicz)가 문헌으로 고증한 것처럼, 『예술 개념의 역사』³⁾는 당대에 호화로운 문명생활을 누릴 수 있으면서 말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소수 권력집단의 선택과 대중들의 반응의 역사입니다. 그에 따르면 15세기 중엽 인문학자 잔노초 마네티(Gianozzo Maneti)가 여러 예술들 중에서 ‘지성적인’ 혹은 ‘충명한’ 예술(artes ingenuae)을 따로 떼내서 새로운 말을 만들었습니다. 1747년에는 프랑스인 샤를로 바뜨(Charles Batteux)가 자신의 논저에서 ‘순수미술(beaux arts, fine arts)’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의 미학자 베이트스(M. Weitz)(1957)⁴⁾의 말대로 “예술은 개방적인 개념(an open concept)”이어서 무엇을 예술이라고 부를지는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를 것입니다만, 지금 민주사회에서 공공정책이 쓸 말을 아무렇게나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술지원 정책의 일선에 있었던 행정가는 소위 보수-진보 정권에서 예술이라는 말 앞에 붙는 말이 순수-기초로 번갈아 바뀌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문화행정가는 “순수예술의 자리를 대신하던 기초예술이 OOO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다시 순수예술에게 밀려”나는 상황에 대해 아쉬워하면서, “순수예술이 가치중립적, 자기완결적, 중심고정적인 데 반해 기초예술은 가치지향적, 자기출발적, 중심이동적이다”(박상언, 2008)⁵⁾고 논평했었습니다. 단순히 용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중요 의사결정권자가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 즉 정책의 가치관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만 바뀐 것이 아니고 정권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정책은 말로 일을 합니다. 정책의 언어는 선택됩니다. 말 그대로 “중범위 수준”의, 지금 눈 앞에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다루기에 적합한 소통 수단으로 선택된 기호일 뿐이지 철학적으로 보편타당한 개념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술의 개념을 보편타당하고 명확하게 정의한 후에야 예술정책을 수립한다면 정책가의 역량이나 수명이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말은 생각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표현하는 <사피어

워프의 언어상대주의 가설(Sapir-Whorf Linguistic Relativity hypothesis)>⁶⁾도, “내 언어의 한계들은 내 세계의 한계들을 뜻한다”는 <비트겐슈타인 류의 언어 신비주의>도, “흰 말은 말이 아니다(白馬非馬)”는 중국 <명가(名家)>의 현학적 궤변의 말들로는, 현실 문제를 손에 잡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책의 언어는 언어학자들이 제대로 다 이해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언어의 오묘함 언저리 어디쯤에서, 지금 이 시대에 당면한 문제 해결에 가장 적절한 말들 중에서 하나가 선택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선택된 말은 화자들이 소통하고 싶은 현실을 가두는 “새장”과 같습니다(김해보, 2025)⁷⁾. 우리는 새장이 있어야 새가 날아가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새장 안에 어떤 새를 집어 넣었는지 선택의 결과는 절대로 모든 이로부터 지지받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궁정과 귀족을 떠올리기 때문에 “순수”라는 말이 위화감과 배제감을 준다고 한다면, 기초과학과 연결 지은 “기초” 예술이라는 말은 학교나 실험실, 또는 그 위에 뭔가를 더 쌓아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을 떠올리게 해서 더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선택은 불가피하고, 그 선택은 선택되지 못한 영역의 배제를 내포하기 때문에 논쟁도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정책이 말을 선택한 의도가 순수하다면 논쟁을 회피하거나, 논쟁을 우려해 복지부동할 것은 아니고, 말에 다 담지 못하는 현실을 더 좋게 바꾸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함께 하자고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정책이 선택한 용어가 논쟁 보다 실천으로 에너지를 모을 수 있으려면 어쩌해야 하는지, 예술 앞뒤로 붙는 말들의 정책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실리를 위해 예술의 개념 보다는 정책의 말에 집중해 봅시다.



『예술의 발명(The Invention of Art)』
(래리 샤이너 저)



예술이라는 “말의 새장” 안으로 들여보내진
예술이라는 새는 무엇 무엇인가?

1) “The Fine Arts Debate and Strategies for Choosing the Right Policy Language - on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words that precede and follow the arts” (Hae-Bo Kim, Culture+Policy Issue Paper Vol 2025-02, 2025.02.12., Seoul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2) 『예술의 발명(The Invention of Art)』(래리 샤이너 저, 조주연 역, 바다출판사, 2023)
3) 『예술 개념의 역사』(W. 타타르키비츠(Wladyslaw Tatarloewicz) 저, 김채현 역, 열화당, 1986.09.10.)
4) 『미학에서의 이론의 역할(The role of theory in aesthetics)』(M. Weitz, 1957, W. 타타르키비츠 재인용, 1986)
5) 기초예술인가, 순수예술인가 (박상언, 경기일보, 2008.07.08.)

6) [말들의 풍경-고종석의 한국어 산책] <49> 언어는 생각의 감옥인가?-사피어-워프 가설에 대하여 (고종석, 한국일보, 2007.2.7.)
7) “예술”이라는 말의 “새장” (김해보, 2025.2.12)

1. 예술의 정의 변화와 순수-기초예술 지원정책 논쟁들

한국법제연구원이 2024년 말에 발간한 『문화예술진흥 법령 체계 정비 방안 연구』(이세정, 2024)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을 가칭 문화예술정책기본법으로 번모시켜, 문화예술정책 추진 기본이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관련 사항 추가하고, 다른 법률과 관계에 관한 조문을 두어 해석상 혼란을 없애”자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법률 제정 시 기존 법률과의 관계 등이 정리되지 않아 법률간 모순·충돌, 중복 진흥·지원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의 소지가 있으며, 행정 현장에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상 애로 발생이 우려된다”(이세정, 2024)⁸⁾는 현황 진단에서는, 업무영역을 잘 갈라 줘야만 하는 공공행정의 본성과 그것이 다루어야 할 예술의 개념이 행정 언어에 걸맞지 않게 모호하다는 한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술정책이 지원할 예술 앞에 붙일 말을 선택하는 고민은 25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진흥원이었던 시절인 2000년에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 『순수문화예술 진흥방안 연구』(양진열 외, 2000)를 내놓았습니다. 새로운 예술지원 정책의 근거가 될 이 연구보고서는 “인간의 창의성과 감성의 결과물인 문화예술은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 목적으로서 인간 삶의 한 형태이다. 그리고 순수문화예술은 미적 가치의 추구라는 목적에 봉사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경제 진흥과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담론이 힘을 쓰기 시작하던 시절에 순수한 미적 가치 추구를 내세운 점은 담대합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8년 뒤의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후 “순수예술”은 공적 지원의 이유를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주면서도 위화감을 덜 주는 “기초예술”로 개명했다가, 권공의 변화에 따라 다시 이름표를 바꿔 붙이는 신세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예술이 위기에 처해있다”, “기초과학처럼 산업발전의 근간이 되므로 기초예술을 지원해야 한다”⁹⁾는 말은 예술을 모르는 무식쟁이라는 정도의 비난도 감수할 용기가 있어야만 반박할 수 있는 명제로 자리 잡습니다. 예상되는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적 지원 명분을 강화한 프레임일 뿐인 곳에 적합한 단어는 ‘순수’나 ‘기초’, ‘다양성’이 아니라, 그저 ‘종속’일 따름이다”¹⁰⁾고 직설을 날린 글도 검색이 됩니다. 듣기엔 불편하지만 고려해야 할 말입니다. 오세근 교수(2004)¹¹⁾도 “사실 기초예술은 신조어로서 기존의 표현인 순수예술과 내용상으로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책 언어가 주는 부정적인 느낌을 줄이려고 노력했다는 점만 제외하면, 진영논리를 떠나서 진행되어야 할 예술정책 논쟁에서, 순수예술과 기초예술은 같은 개념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는 게 굳이 구분하는 것 보다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이 2022년에 개정되면서 게임과 애니메이션까지 (문화)예술로 명시되어서, 이제 순수나 기초라는 말을 어디에다 붙여야 할지 더욱 난감해졌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발간하는 웹진 A-Square의 편집장은 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지원 방식의 변화는 물론 민간 영역에서 통용되는 문화예술의 범주에도 중요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랐으면서 2023년 1월 기획기사 발간 취지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에 명시된 예술의 정의가 변해서 정책과 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선뜻 실감되지 않습니다. 당시 편집장의 말대로 “우리는 예술이라는 개념에 희미하지만 때로는 명징하게 빛나는 어떤 ‘공통감’을 가지고 있어”(김대현, 2024)¹²⁾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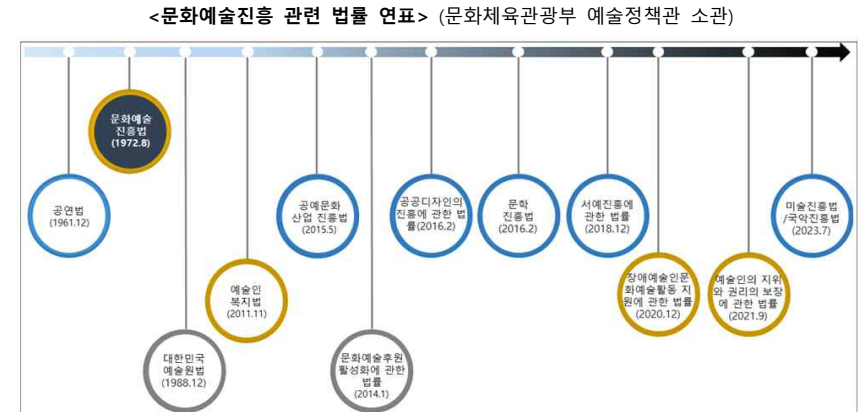
8) 『문화예술진흥 법령 체계 정비 방안 연구』(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2024.11.28.)

9) [예술현장] 기초예술의 존재 이유와 예술기반지원사업의 의의에 대하여 (강선애, 온라인 공론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로그, 2021.12.14.) 등 참조

10) [문화칼럼] 기초예술은 문화산업 ‘기초’가 되므로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이문원, 자유기업원, 2019.11.15.) 등 참조

11) 팬창은 삶의 기준으로서 기초예술 (오세근, 문화예술 2004년 12월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4)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들 예술의 정의에는 별로 관심들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정책이나 사람들의 행동이 꼭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일까요?



(출처 : 이세정, 2024)

2. “예술”이라는 말 _ 예술의 사전적, 법률적, 통계적 정의

본격적으로 순수예술 논쟁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예술이라는 “말의 새장” 안에는 어떤 새들이 들어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이 발간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예술>과 Oxford Languages를 인용한 구글의 <Art> 검색 결과를 비교해보면 그 개념 설명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것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겠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예술>이 수만년 동안 한반도의 사람들이 사용한 개념을 담고 있는 말이 아니라 영어 <Art>를 번역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확하게는 “선택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 <예술(藝術)> 정의 (출처 : 국립국어원, 검색일 : 2025.2.10.)	구글 검색 결과 <definition of art> (출처 : Oxford Languages, 검색일 : 2025.2.10.)
「1」 <u>기예와 학술</u> 을 아울러 이르는 말	1. <u>the expression or application of human creative skill and imagination</u> , typically in a visual form such as painting or sculpture, producing works to be appreciated primarily for their beauty or emotional power.
「2」 특별한 재료, 기교, 양식 따위로 감상의 대상이 되는 <u>아름다움</u> 을 <u>표현하</u> 려는 인간의 활동 및 그 <u>작품</u> . 공간 예술, 시간 예술, 종합 예술 따위로 나눌 수 있다	2. the various branches of creative activity, such as painting, music, literature, and dance. 3. subjects of study primarily concerned with the <u>processes and products of human creativity and social life</u> , such as languages, literature, and history (as contrasted with scientific or technical subjects).
「3」 아름답고 <u>높은 경지</u> 에 이른 <u>숙련된 기술</u> 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 <u>a skill at doing a specified thing</u> , typically one acquired through practice.

12) 정의와 범주에 가려진 근본 - 문화예술의 의미를 사유하며 (김대현, A SQUARE Vol 0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01.)

또 하나 동시대인들의 보편적인 언어 개념을 담은 것이 법률이므로 법에 나타난 예술의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소관 현행 법률은 총 89건이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은 총 91건(모두 2025.2.12.일자 검색 결과)으로 확인됩니다. 이 중에서 명시적으로 “예술”이라고 정의된 조항은 없습니다. 대신 “문화예술”(문화예술진흥법), “예술활동”(예술인권리보장법), “저작물”(저작권법)이라는 보다 실체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의 정의 조항에 열거된 세부 장르들의 정의는 각각의 진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법정 통계를 작성되고 있는 <문예연감>, <예술인실태조사>에서 조사항목을 나누는 개념적 구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술인과 관련된 개념으로는 “예술인”(예술인복지법, 예술인권리보장법), “장애예술인”(장애예술인지원법), “예술사업자”(예술인권리보장법) 등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술활동과 관련된 개념으로는 “예술교육활동”(예술인권리보장법), “문화산업”(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법), “문화”(문화기본법, “지역문화”, “생활문화”, “문화지구”(지역문화진흥법), “인문학”(인문학법), “디자인”(디자인 보호법), “문화예술교육”(문화예술교육법), “국제문화교류”(국제문화교류법) 등이 정의되어 있습니다.¹³⁾

예술/예술인의 정의를 포함하는 문화예술 법령 현황					
영역 구분	법령	제정 년도	정의 조항에 명시된 내용		
			예술	예술인	기타
예술	문화예술진흥법	1972.08.14	문화예술		문화산업
	공연법	1964.12.30	공연		
	국악진흥법	2023.07.25	국악		국악문화산업
	문학진흥법	2016.02.03	문학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2012.02.17	만화		만화산업
	미술진흥법	2023.07.25	미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06.04.28	영화		영화산업
예술인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2018.12.11.	서예		
	예술인복지법	2011.11.17	문화예술	예술인	
	예술인권리보장법	2021.09.24	예술활동	예술인, 예술사업자	
문화산업	장애예술인지원법	2021.09.24		장애예술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06.04.28	음악		음악산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999.02.08			문화산업, 문화상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014.01.28			대중문화예술산업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2015.05.18.	공예		공예문화산업
	디자인 보호법	1961.12.31	디자인		
	산업디자인진흥법	1977.12.31			산업디자인
문화	저작권법	1957.01.28	저작물	저작자	
	문화기본법	2013.12.30			문화
	지역문화진흥법	2014.01.28	문화예술		지역문화, 생활문화, 문화지구
	문화예술교육지원법	2005.12.29			문화예술교육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6.02.03			인문, 인문학, 인문정신문화
문화재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2017.03.21			국제문화교류
	국가유산기본법	2023.05.16			국가유산, 문화유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962.01.10			문화유산

13) 상세 법령 조항은 별첨 상세자료 “법령에 나타난 예술의 정의 및 문화산업과의 관계 비교”를 참고 바람

해외 법령 중에도 예술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정의해 놓은 사례를 찾기는 힘듭니다. 미국의 경우 예술을 장르 나열 식으로만 제시하고 있고, 영국은 아예 문화예술 관련 정의를 포함한 포괄적 법령이 없습니다. 일본은 “문화예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예술을 장르 나열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예술인을 예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독립자영업자로 정의합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연방차원의 예술진흥법과 각 주들의 문화진흥법이 대조를 이룹니다. 이는 문화가 예술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측면을 보여줍니다. 유네스코에서는 “문화”와 “예술”의 정의를 가장 원론적이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보다는 보편 기준의 선언이 중요한 국제 거버넌스 기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듯 합니다.¹⁴⁾

예술/예술인의 정의를 포함하는 해외 문화예술 법령 사례	
국가/법령	예술 관련 정의
미국 <National Foundation on the Arts and Humanities Act of 1965> (1965년 예술 및 인문학에 관한 국가재단법)	952정의(이 법안에서 사용된 인문학, 예술, 작품, 사업, 단체, 지역적 한계 등에 대한 정의) (b)이 법에서 ‘ 예술 ’은 음악(기악 및 성악), 무용, 연극, 민속 예술, 창조적 글쓰기, 건축 및 유관 분야, 회화, 조각, 사진, 그래픽과 공예, 산업디자인, 의상과 패션 디자인, 동영상,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비디오, 녹음 · 녹화, 발표와 관련된 예술, 퍼포먼스, 실험, 그리고 이와 유사한 예술형태의 전시, 이 나라의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전통예술, 예술을 인간의 환경에 적용하는 연구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일본 <文化芸術基本法> (문화예술기본법)	제8조(예술 의 진흥) 국가는 문학, 음악, 미술, 사진, 연극, 무용, 기타 예술(다음 조에서 규정할 미디어예술은 제외) 진흥을 위해, 이들 예술의 공연, 전시 등에 대한 지원, 예술제 등의 개최,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9조(미디어 예술 의 진흥) 국가는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및 컴퓨터, 기타 전자기기 등을 이용한 예술(이하 ‘미디어예술’이라 함)을 진흥하기 위해, 미디어예술의 제작, 상영 등에 대한 지원,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10조(전통예술 의 계승과 발전) 국가는 아악(雅樂), 분라쿠, 가부키, 구미오도리 및 기타 일본의 전통 예술(이하 “전통 예술”이라 한다)을 행한다.... 제11조(공연예술 의 진흥) 국가는 강담(講談), 라쿠고, 룬코쿠, 만화, 희극, 노래 및 기타 공연예술(전통예술은 제외한다)을 수행한다....
캐나다 <Status of the Artist Act> (예술가지위법)	제5조 정의에서 “ 예술가 ”를 제6조 제2항 (b)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립자영업인 ¹⁵⁾ 로 한정함 (“artist” means an independent contractor described in paragraph 6(2)(b))
유네스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 :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 (1980.10.27.)	I. 정의...본 권고의 목적상: 1. ‘ 예술가 란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독창적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이를 재창조하는 사람, 자신의 예술적 창작을 자기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방법으로 예술과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 고용되어 있거나 어떤 협회에 관계하고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예술가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14)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2023.7월호> “문화예술과 법”(김해보, 서울문화재단, 2023.7.5.) 참조

최근 문화예술법령들이 대부분 관련분야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어서 해당 법에 근거하여 통계가 작성됩니다¹⁵⁾. 이때 정책의 언어는 매우 구체적인 현실의 실체를 만납니다. 법에 정의된 개념과 실제 현실에서 쓰이는 말의 의미,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들의 양상을 중간 쪼에서 현실을 분류하고 숫자로 기록해야 하는 연구자들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통계는 만들어집니다. 불완전하더라도 조작적 정의와 제한적이거나 합리적인 선택 위에서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끝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술인실태조사』에서 문화예술활동 분야를 정의하는 내용을 보고 불만을 토로할 예술가는 많겠지만, 이 조사의 목적이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해 파악하여,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인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문화예술 활동 분야	
분 류	정 의 ¹⁶⁾
문학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의 활동을 포함
미술	시각적인 요소로 표현하는 예술. 그림. 조각. 서예 활동을 의미(공예, 건축 제외)
공예	쓰임을 바탕으로 발달한 예술 활동으로 현대공예, 전통공예 포함
사진	사진기를 가지고 하는 예술활동
건축	건축물을 활용한 예술활동. 설치미술 등을 포함함
음악	서양음악 활동을 의미
대중음악	널리 많은 사람들, 즉 대중들이 즐기는 음악을 제작 또는 활동하는 것을 포함
국악	전통음악을 제작 및 계승, 활동하는 것으로 정의
무용	발레, 고전무용, 현대무용, 한국무용 등의 순수무용과 그 외 무용활동을 의미
연극	사람들이 직접 보는 앞에서 이야기의 내용을 연기로 소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연극, 오페라, 뮤지컬 활동 포함
영화	일정한 의미를 갖고 움직이는 대상을 촬영하여 영상기로 영상막에 재현하는 종합 예술활동
방송연예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 보도·논평·교양·음악·오락·연예 등을 전파에 실어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청취 또는 시청할 수 있도록 음성이나 영상을 널리 내보내는 활동
만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의 활동
기타	그 외 기타 예술활동

<출처 : 『예술인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22.9.27.)>

3. “예술”이라는 관념 _ 예술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

평소에는 별로 관심 없다가 법률이나 사전에 명시된 예술의 정의를 보게 되면 이것이 예술인가, 이 표현이 적절한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때 건뵈보는 예술의 개념에 대한 저명한 학자들의 말들이 있습니다. 예술에 별로 우호적이지 않았다고 평가되는 플라톤과 이성으로 세상을 파악하려고 했던 칸트 등이 주로 회자됩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예술의 역할과 변화를 분석하는 사회학자들의 예술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¹⁷⁾. 예술가는 동시대 철학자들의 세계관, 심지어 과학자들의 새로운 발견으로 바뀌는 우주관과 공진하며 예술로 세상을 재현하기도 하고 반대로 사회를 혁신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술가 당사자의 예술관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자/예술가들의 예술의 개념 정의	
학자/예술가	예술의 개념 정의
플라톤 (Platon)	미의 이데아, 즉 절대미를 내세우면서 그것이 이성적인 선과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함으로써 도덕에 의거한 미와 예술을 주장함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s)	도덕적, 정치적 맥락으로부터 분리해 관객에게 이성의 힘을 고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포와 연민과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봄
칸트 (Kant)	미적인 영역 또는 예술 영역이 도덕이나 학문을 떠나서 그 어떤 것에도 봉사하지 않는 보편성을 띤 독자적인 영역임을 입증함
헤겔 (Hegel)	‘미학’을 통해 예술미를 자연미보다 우월한 것으로 정립하고, 예술의 목적이 결코 자연의 모방이 아니라고 정의함
곰브리치 (E. H. Gombrich)	예술(Art)은 없으며 예술가(Artist)만이 존재한다고 선언
잔슨 (H. W. Janson)	시 예술(Art)에 대해 궁극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어쨌든 예술 작품은 ‘미적인 물체(aesthetic object)’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 또 그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만들어지는 점에서 여타의 물체와는 구별된다고 설명
허버트 리드 (Herbert Read) ¹⁸⁾	예술은 곧 마음을 기쁘게 하는 형식을 창조하려는 어떤 시도임 우리의 미감(美感)을 만족시켜 주는 것은 예술의 형식.
톨스토이 (Tolstoy)	자신이 경험했던 감정을 스스로에게 일깨우는 것, 그렇게 자신 안에서 감정을 불러낸 후에는 움직임 · 선 · 색채 · 소리, 또는 언어로 표현된 형식을 통해 그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자신과 동일한 감정을 체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술 활동

(출처 : 손정혁 외(2019)¹⁹⁾, 허버트 리드(1984, 2006 역) 등 종합)

15) 『2024 문예연감』(2023년도 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5.1월) 등 참조
16) 각 관련 법령의 정의 조항을 그대로 요약하고 있으나, 일부는 본 통계조사에서 정의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17) 상세 내용은 별첨 자료 참고
18) 『예술의 의미(The Meaning of Art)』 (허버트 리드 저, 임산 역, 예코리브르, 2006)
19) 『예술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장르 분류체계 재설정 연구』 (손정혁 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

그런데 우리가 예술이라는 말의 개념을 살펴보면서 정작 우리의 철학을 인용하지 않는 것은 아쉽습니다. “음악을 배우느라 석 달간 고기 맛을 잊고(三月不知肉味)”, “누군가 노래를 부르면 꼭 함께 따라 부르는(與人歌而善)”, 풍류가객이었던 공자의 예악(禮樂) 사상은 서양의 어떤 예술론보다 순수예술 논쟁에 참고할 바가 많습니다. 공자의 예악(禮樂)사상은 그가 인간의 본성 안에서 시(詩)와 예(禮)와 악(樂)이 하나로 통한다고 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詩)에서 일어나고(興起), 예(禮)에서 바로 서며, 악(樂)에서 (인격의 완성을) 이루어라”²⁰⁾(論語 泰伯편)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자는 문예적 취향 개발이 곧 인격적 완성의 길이라고 보고, 이를 “오지(五至)”론으로 설파했습니다.²¹⁾

공자가 “제자들아 왜 시를 배우지 않느냐!”(小子 何莫學夫詩)며 제자들에게 시 쓰기의 장점을 설명한 부분은 지금 예술의 순수성 논쟁을 무색하게 합니다. 공자가 “시 3백 편을 한 마디로 말하면 “생각에 사악함이 없음”이니라”²²⁾(論語 爲政편)며 칭송한 시경(詩經)에는 향간의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를 채집한 ‘국풍(國風)’과 지배층 문인들이 지은 시 ‘아(雅)’, ‘송(頌)’이 함께 편찬된 것이니, 애시당초 대중성-순수성 논쟁을 넘어섭니다. 공자가 “시는 감흥을 일으키고, (정치와 사물의 원리를) 살펴보게 하며,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리게 하고, (풍자로) 학정을 비판하고, (인륜을 배워) 가까이는 부모를 섬기고 멀리는 임금을 섬길 수 있으며, (다양한 자연을 비유하고 묘사한 시에서) 날짐승, 들짐승, 풀과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알게 해준다²³⁾(論語 陽貨편)고 평한 부분에서는, 순수예술 논쟁에서 각을 세우는 예술성, 정치적, 실용성의 구분도 무색하게 합니다.

물론 공자의 예술관이 우리나라 지식인의 예술관을 대변하지는 못합니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본인들이 스승으로 받들던 공자의 예술관과 인간관까지 왜곡하고²⁴⁾ 오로지 형이상학적 질서를 국가 체계를 통해 구현하는데 골몰했습니다. 문(文)이 아니라 문예(文藝)를 좋아하던 왕에게 “문예(文藝)는 말무(末務)”이니 근본에 충실하라고 상소를 올리는 조선 초기 지식인의 태도²⁵⁾는 근대어까지 이어집니다. 서유견문록으로 우리에게 최초의 개화 지식인 줌으로 알려진 유길준조차도 “문학(文學)이 국가를 병들게 하고 민인을 학대한다”고 단언했습니다(송호근, 2013, p.50)²⁶⁾

4. 동아시아에서 “Art”가 “藝術”로 불리게 되던 시절의 말과 생각들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술을 논하면서 우리말이 아니라, 18세기 서양 상류층의 필요에 의해 발명되었다고 하는 “Art”를 일본 지식인들이 수입하면서 만들어 낸 “藝術(예술)”이라는 말로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과 개념과 현실이 서로 공유되지 못하고 논쟁은 공전합니다. 공자의 예술관을 살펴본 김에 “Art”가 “藝術”로 불리게 되던 시절의 상황이 어땠는지, 한발 더 나아가서 일본 지식인의 번역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썼던 예술을 뜻하는 말은 어땠는지를 살펴서 지금 예술이라는 말에 담긴 뜻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순수예술 골라내기에 앞서서 평가할 사실을 좀 다각적으로 넓게 보기 위한 것입니다.

일본의 번역가 야마오카 요이치(山岡洋一)에 의하면 메이지 원년(1868)부터 15년간 일본어로 번역된 서양 서적은 1,410종에 달했다(山岡洋一, 2004, 이한섭, 2012 재인용²⁷⁾)고 합니다. 이렇게 물밀 듯이 들어오는 서양 문물과 개념의 번역 과정에서 적절한 말을 찾을 때, 중국 고전에 있는 단어에 의미만 새롭게 부여해서 사용하거나, 일본어에 존재하던 유의어에 새로운 의미를 담아 전용(轉用)하는 방법²⁸⁾을 쓰거나, 아예 새로운 말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예술>도 <Art>의 번역어인데 니시 아마네(西周, 1829~1897)가 1870년대에 <mechanical art>와 상반되는 의미를 가진 <liberal art>를 ‘藝術’로 번역한 것이 그 시초(송인재·평칭, 2023)²⁹⁾라고 인용됩니다. 윤세진(2008)은 일본인들이 1873년에 빈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Wien萬國博覽會) 출품 목록에 표기된 독일어 ‘쿤스트게베르베(Kunstgewerbe, 미술 산업)’를 ‘미술’로 번역하였으며, 이후 ‘미술’은 ‘쇠네 쿤스트(Schöne Kunst = Fine Art)’와 ‘빌덴 쿤스트(Bilden Kunst = Visual art 또는 Fine Art)’의 번역어로 통용되었다고 당시 상황을 소개합니다³⁰⁾. **우리나라 1세대 서양화가 중 한 사람인 김찬영(金瓚永, 1893~1960)은 “나의 직업이 미술이란 말을 들은 순사군(巡査君)은 크게 ‘술(術)’자에 의심을 품고 가로되 ‘미술은 요술의 유(類)인줄 알거니와 그러한 것을 배우려고 유학을 하였나.’라고 하니 나는 몸에 소름이 끼쳤다”라고 회고(윤세진, 2008) 하였습니다. 이처럼 1910년대 까지만 해도 일반인에게 Art의 번역어인 “미술”은 아직 낯선 용어였습니다.**

사실 <Art>의 번역어로서 <藝術>이 아니라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원래부터 사용되던 <藝術>도 있었습니다. 송인재·평칭(2023)에 따르면, 남조 송나라 범엽(范曄, 398~445)이 지은 『후한서(後漢書)』권5 · 「효안제기(孝安帝紀)」권5의 다음 문장에서 <藝術>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황제의 명으로 유진(劉珍, ?~126)과 오경박사가 동관(東觀)의 『오경(五經)』, 제자, 전기, **백가예술(百家藝術)**을 정비하고 빠지거나 잘못된 것을 정제하고 문자를 바로 잡았다.” (송인재·평칭, 2023)

물론 여기서 ‘예술’에는 음양(陰陽), 복서(卜筮), 천궁(天宮), 의무(醫巫), 음률(音律), 상술(相術), 기교(技巧)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처럼 한자 문화권에서의 藝나 藝術이 주 나라 <六藝>³¹⁾의 개념을 이어받아 기술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지금의 예술과 다른 말이라고 평합니다. 윤세진(2008)도

20)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

21) 알고리즘 문화의 시대에 문화정책이 봉착한, 취향과 공적가치 사이의 딜레마 극복 방안에 대한 시론적 제안- 문화의 의미 재해석과 공감행정 (김해보, 한국예술경영학회 2023년 상반기 공동학술대회, 2023.5.13.) 참조
夫民之父母 必達於禮樂之源 以致五至而行三無...志之所至 詩亦至焉 詩之所至 禮亦至焉 禮之所至 樂亦至焉 樂之所至 哀亦至焉 詩禮相成 哀樂相生....此之謂五至矣 (백성의 부모는 반드시 禮와 樂의 근원에 통달하여 五至를 이루고 三無를 행하여.... “志가 이르는 바에 詩 또한 이르고, 시가 이르는 바에 禮 또한 이르고, 예가 이르는 바에 음악 또한 이르고, 음악이 이르는 바에 슬픔 또한 이른다. 그리하여 시와 예가 서로 이루어 주고, 슬픔과 즐거움이 서로 생긴다.....이것을 五至라고 한다) (孔子家語 論禮 第二十七)

22) “詩三百 一言之蔽之 曰思無邪 (시경의 시 3백편을 한 마디로 말하면 “생각에 사악함이 없음”이니라)(論語 爲政편)

23) 子曰, 小子 何莫學夫詩? 詩, 可以興, 可以觀, 可以群, 可以怨 邇之事父, 遠之事君 多識於鳥獸草木之名

24) 孔子家語 哀公問政편의 “天道敎生 人道敎政 地道敎樹 夫政也者 猶蒲盧也 待化以成”을 中庸 20장 “人道敎政 地道敎樹 夫政也者 蒲盧也”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생태적/자율적 본성에 해당하는 공자의 말을 누락시켰음

25) 세조실록 39권, 세조 12년 7월 8일 병자일 / 공조 판서 구충직이 홍학조건을 올린다.

26) 『시민의 탄생-조선의 근대와 공론장의 지각』, 송호근, 민음사, 2013, p. 50

27) 근대어 성립에서 번역어의 역할-일본의 사례 (이한섭, 새국어생활, 2012.)

28) speech->연설(演說), hygiene->위생(衛生) : ‘연설’은 불경에 나오는 말이고 ‘위생’은 장자(莊子)에 이미 나온 말
29) 근대 한국 ‘예술’ 개념의 전개 양상 (송인재·평칭, 어문논집, 민족어문학회, 2023.08.)

30) [근대와 만난 미술과 도시] 제1장 미술의 탄생-2.근대적 미술개념의 형성 (윤세진, 한국문화사, 2008.08.)

31) 육예(六藝) : 《주례(周禮)》에서 이르는 여섯 가지 기예.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 이는 각각 예학(예법), 악학(음악), 궁시(활쏘기), 마술(말타기 또는 마차물기), 서예(붓글씨), 산학(수학)에 해당.

“예술(藝術)’이라는 개념이 있기는 하였지만, 이는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를 아우르는 사대부의 교양을 의미하는 것이었지 ‘미(美)’를 공통으로 하는 유사성의 집합이 아니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예전의 영어 <Art>는 기술 요소(테크네)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지금의 Art와 같은 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프랑스인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이 주한프랑스공사관 통역관으로 근무하면서 수집한 총 3,821종의 조선 도서를 9부 36류(類)로 나누어 기록하여 1896년에 『韓國書誌(한국서지)』로 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예술은 제7부 기예류에 서술된 산법류·천문류·술수류·병가류·의가류·농잠류·악보류·예술류(藝術類) 중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이 예술류(藝術類)는 서지 <2575. 帝王遺像(제왕유상)>이라는 채색도로 시작되고, 같은 류의 서지 <2564. 當無有用(당무유용)³²⁾>에 이르면 “起重機(기중기), 索引機(색인기), 펌프, 베틀, 벽돌 굽는 가마솥 등 모든 종류의 기구 도판들”로 이루어진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³³⁾. 이런 편제에서 당시 조선인의 예술에 대한 관념이 지금 한국인과 다르지만 오히려 프랑스인과는 비슷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을 바꾼다고 생각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술이라는 말은 일본인의 번역어를 따라서 썼지만 예술에 대한 관념은 여전히 조선의 관념을 유지했던 점이 확인됩니다. 윤세진(2008)³⁴⁾은 조선미술전람회가 일제 조선총독부에 의해 개최되었음에도 일본의 문전이 일본화, 서양화, 조각 세 부문으로 구성된 것과 달리, 동양화, 서양화 및 조각, 서(書) 부문으로 삼분되어 오래 지속된 점이 특이하다고 소개합니다. 일본에서는 1882년 내국회화공진회(內國繪畫共進會)에서부터 회화가 서(書)와 분리되면서 “회화”가 그림의 정식 명칭으로 사용되었고, 1903년 내국권업박람회부터는 서(書)가 미술의 영역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조선미술전람회에서는 오랫동안 서부(書部)가 독자적인 한 부문으로 남았다가 1932년 11회전부터 폐지되었습니다(윤세진, 2008). 그만큼 말보다 생각의 뿌리가 깊은 게 아닐까요?

결국 한자어도 아니고, 영어의 번역어도 아닌, 우리 민족의 생각을 켜켜히 쌓아서 담아온 우리말에서 우리의 예술에 대한 생각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호완의 『우리말의 상상력』³⁵⁾에 따르면 “맛이 육신의 양식과 관련한 물질적인 것이라면, 맛은 심미적·정신적인 풍치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는 서양 철학자들이 언급하는 예술의 기능과 본질을 모두 담고 있는 순 우리말 <그림>의 원래 뜻을 다음과 같이 풀어줍니다. “그림과 그리다”는 말에는 이미지를 그리는 것 뿐만 아니라 가상의 관념을 머리에 떠올리는 것과 그것을 갈망하듯 그리워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의 모양과 비슷하게 모습을 그리어 나타낸 것을 ‘그림’으로 풀이한다...사물을 그리는 그림은 원형적인 관점에서 보아 상징성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어떤 도상(icon)으로 상징화 되는 것이다. 도상에 새겨진 그림이 보여주는 상징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제사장 격인 군왕들만이 그러한 상징적인 도상(圖像)을 가졌으며, 거기에서 진정한 군왕의 권위가 인정되었던 것이다.(정호완, 1991, p.205)”

단순히 오락만이 아니라 제의, 연희, 판놀음, 능수능란함의 뜻까지 포함하는 <놀이>도 앞서 소개했던 학자들이 주장하는 예술의 본질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손으로 잘 붙들고 능수능란하게 부리는 <재주>와 연희판에서 노는 <잰이>의 연결에서도 <Art>에 담긴 기술과 예술의 연결 관계를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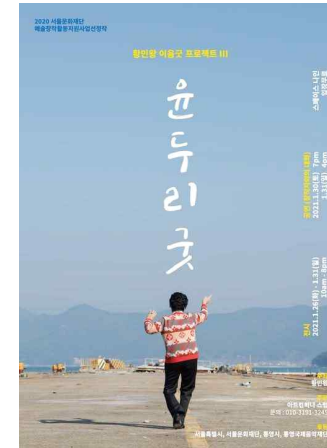
32)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로서 “그 없음으로 쓸모가 생겨나다”는 뜻.

33) 韓國書誌(모리스 쿠랑 저, 이희재 역, 일조각, 1994) 참조

34) [근대와 만난 미술과 도시] 제1장 미술의 탄생-3.미술 개념의 분화와 질서화 (윤세진, 한국문화사, 2008.08.)

35) 『우리말의 상상력』(정호완 저, 정신세계사, 1991)

그러니, 순수예술 논쟁에서 떠올려야 할 순수한 예술의 본성과 현상들 중에 <예술=Art=藝術>이라고 표현되지 않았던, 우리가 우리말로 생각한 예술의 개념과 표현도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예술 행위 중 하나인 춤의 어원을 상상하게 하는 포스터
<출처 : 아트컴퍼니 스텝, 2021>

춤 ≡ 어깨를 추어올리다
그림 ≡ 굽다, 그리다, 그리워하다
재주, 잰이 ≡ 손으로 잘잡다
놀이 ≡ 놀다

5. “원시예술”부터 “Ai예술”까지, 예술이라는 활동들의 범주화와 수식어 붙이기

선사시대부터 인간들의 문화적 행위 중 예술이라고 후대에 분류하고 이름 붙인 것들을 두루 살펴서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대 인류의 동굴 벽화를 부르는 원시예술부터 AI가 만드는 생성형 예술까지 포함했습니다. 이 중에서 순수예술을 구별해내기 위해 그것이 주로 누구에 의해 또는 누구의 욕망에 의해, 무엇을 위해 창작되었으며, 주로 어디에서 유통되었는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각 유형의 예술들을 지칭하기 위해 예술 앞에 붙인 수식어는 그것을 붙인 사람들의 마음을 반영하는데, 우호적이거나 비판적 평가를 담고 있는 그 말들에 대해서 그럴만한 객관적 근거를 아직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을 “순수예술”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 대척점으로 몰고 싶은 소위 “순수하지 않은 예술”을 그에 걸맞게 상업, 대중, 취미, 아마추어 예술 등으로 구분지어 부른 것 뿐인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래리 샤이니어나 타타рки비츠의 주장에 동조하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창작 주체의 직업성/전문성이 순수성이나 예술적 완성도를 담보하는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전업 작가가 먹고 살기 위해 예술성과 상관없이 다량 생산하는 작품도 있으니까요. 창작 의도로 보면, 완전히 순수한 미적 욕망으로만 창작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미처 팔리지 못한 전문예술가의 작품이나, 문인화와 같이 인격도야와 미적 표현을 위해 행한 예술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순수예술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현재 순수예술지원을 요구하는 측의 입장과는 상충됩니다. 자율성도 순수예술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공정, 종교시설, 관청에 귀속된 장인이나 하층계급으로 분류된 기술자들이 의무적으로 생산한 공예품, 궁정예술가가 왕을 찬미한 댕가로 받은 후원금으로 창작된 헌정예술, 부르주아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서 창작된 전문예술가의 작품,

자본의 의뢰를 받아 제작된 대중예술 또는 상업예술, 공적 가치 구현을 위해 동원된 공공예술 등 대부분이 작가의 온전한 자율성과 순수한 예술적 동기로 창작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창작의 자율성으로 순수성을 따질 때, 소위 독립예술이 더 높은 순수성을 보인다고 하지만, 창작에 소요되는 자원 확보의 필요성이나 창작을 시작하는 동기를 고려한다면, 완전히 자율적인 창작은 순전히 놀이를 위해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는 아이의 예술 활동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장미술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지금이야말로 다음 단계의 예술이 상상되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던 심상용(2010)³⁶⁾의 15년 전 주장을 지금 다시 읽는다면, 이제는 지금 인간 예술들 중에서 순수한 것을 골라내는 논쟁에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라, AI예술의 순수성 또는 예술적 가치를 토론하고, 인간과 AI가 함께 만드는 다음 단계의 예술을 그려봐야 할 때라고 재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술이라고 불린 인간 행위들의 유형 중에서 순수예술 골라내기			
누구에 의해	무엇을 위해	어디에서 창작/유통	그것을 부르는 이름
고대 인간	제의, 소통	동굴, 제의	원시예술, 굿, 제의예술
비예술가(교양인)	인격도야, 교양, 미적 표현	사랑방, 시사(詩社)	시, 서화, 문인화, 풍류
비예술가(일반인)	장식, 벽사(禱邪), 여흥	집, 여항	민화, 공예, 대중예술
장인계급+권력자	왕과 귀족의 고상한 생활	궁중, 공방	공예, 궁정예술, 귀족예술
직업 예술가+후원가	권력 찬미, 궁정 오락	궁정, 종교시설, 흥청	궁정예술, 종교예술, 헌정예술, 풍류
직업 예술가+구매자	고객의 욕구 충족	화실, 살롱	전문예술, 부르주아예술, 살롱예술
전문 예술가	창작, 예술 수련, 명성	학교, 작가 스튜디오	순수예술, 전문예술
전문 예술가+기획자	예술 확산, 명성	제도화된 예술공간 (극장, 미술관 등)	고급예술, 장르예술, 순수예술, 예술산업
	예술의 사회적 역할	제도권 밖 예술공간	사회예술, 새로운 공공예술
전문 예술가+자본가	예술 유통, 영리	대중매체	상업예술, 예술산업, 대중예술, 시장예술
전문 예술가+국 가	선동, 국민교육, 공공성	학교, 공공공간, 외교	선동예술, 공공예술, 사회적 예술
전문 예술가+제 도	전통 보존, 다양성 보호	전수관, 공방	전통예술, 민족예술, 원주민예술
직업 예술가+매 체	영리, 인기	대중매체	대중예술, 상업예술
전문예술가+직업예술가	새로운 창작, 영리	문화콘텐츠, 디지털매체	문화콘텐츠, 문화산업
시민(취향추구)	취향 만족, 여흥	개인 공간, 커뮤니티, 대중매체	취미예술, 아마추어예술, 대중예술
시민(정치참여)	저항, 정치적 표현	거리, 공공공간	저항예술, 민중예술, 사회예술
AI (+인간)	기계학습, 인간 모방(?)	디지털 세계	AI 예술, 생성형 예술



유네스코 세계유산 프랑스 쇼베 동굴벽화 (3만6천년 전 조성 추정)



AI 로봇 아이디어의 튜링 초상화 "AI God", 소더버서 15억에 낙찰..."미술 시장 신기원 열어" (임대준, A티타임즈, 2024.11.9)

6. 예술 앞에 수식어들을 붙인 사람들이 주장하고자 했던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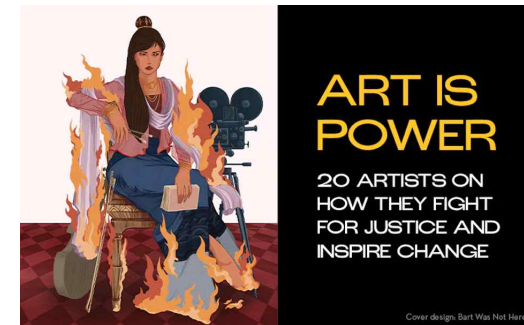
정한경(2021)³⁷⁾은 “18세기 유럽의 상류 사회에서는 왕조의 몰락과 더불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귀족들과 여흥 지식인, 문화예술인들은 여러 자구책들 중 하나로 순수, 실용이라는 불순한 용어를 만들어냈다”고 적나라하게 논평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말을 사용한 사람들이 그 말을 사용한 이유가 뭔지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수문화예술 진흥방안 연구』(양진열 외, 2000.)에서는 순수미술진흥의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미술진흥의 필요성... 순수미술 진흥정책의 중요성은 첫째, 물질 우위로 인한 정신적 황폐화를 막고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인간 삶에 숭고의 가치를 부여하며, 둘째, 창조적 순수미술은 모든 문화산업의 근원이 되면서 경제적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셋째 국제적 경쟁력에 앞서는 창조적 아이디어가 순수미술에서 나오고, 결과적으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자신감과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진취성과 정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양진열 외, 2000)

여기서 “순수”를 숭고, 근원, 창조적, 진취성, 정통성과 연결지으려는 마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순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당시 진흥원)가 지원해야 할 예술의 범위를 구분하면서도 다분히 그 지원의 당위성을 지지하기 위한 말로 읽힙니다. 이처럼 정책에서 순수는 정책 개입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 정당성은 예술이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공공성 또는 공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와 의도로 정책이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시행한 <공공예술>에 대한 비판으로 예술계에서 <새로운 공공예술>이라는 말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래리 사이너는 “말을 바꾸면 생각도 바뀐다는 것이 환상이다”³⁸⁾고 적었지만, 말을 새로 만들어 내는 사람들에게는 꼭 새로운 말로 구별하여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 예술계에서 예술의 도구화와 특정 이념에 봉사하는 예술을 경계하기 위해 “순수”라는 용어가 채택되었습니다.³⁹⁾ 그런데 오히려 현실 참여를 예술 본연의 역할로 생각하는 예술가들에게는 같은 말이 반대로 읽히기도 했습니다. 참혹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오히려 순수예술이 아니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출처 : “예술은 힘이다: 정의를 위해 투쟁하고 사회변화를 만드는 20명의 예술가들의 이야기” (Art Is Power: 20 Artists on How They Fight for Justice and Inspire Change)(ARC(위험에 처한 예술가 네트워크), 2023.6.28.)>

37) [미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았다] 순수. 천사. 노을에 대한 통념 (정한경, brunchstory, 2021.03.27.)

38) 『예술의 발명(The Invention of Art)』, 래리 사이너 저, 조주연 역, 바다출판사, 2023, p.415

39) 순수문학 (조남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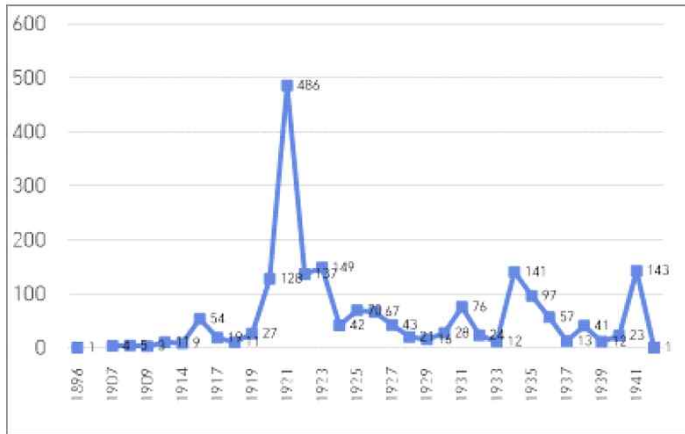
36) 『시장미술의 탄생』(심상용 저, 아트북스, 2010)

<시장예술>이라는 말은 순수한 예술창작의 자율성을 침해받는 상황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심상용(2010)은 “시장 미술은 미술시장의 현재와 같은 탁월한 작동이 아니라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과도하게 시장화된exceedingly marketed Art’ 예술의 유형으로, 현대미술의 새로운 학명學名이기도 하다”며 동시대 예술계 전반으로 비판을 던지고 있습니다. “미술품의 가치와 그 평가에 관여했던 추상적인 논의들은 인기, 유명세, 미디어 친화력, 경매 가격과 같은 요인들에 밀려 고루하고 부차적인 것이 되었다...이러한 특성은 이전에는 전적으로 대중적인 것으로서, 화가와 시인이라면 결코 가까이해서는 안 되는 탈선이나 타락의 산물이었다”고 말한 것이 순수성 판단의 기준으로 쓰일 수 있겠습니다. 그가 시장미술을 이처럼 비판한 이유는 “작가의 상상력은 시장의 반응에 의해 현저하게 제한 받는다”(심상용, 2010)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술지원 정책에서 아트마켓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책이 시장의 불순함을 간파하지 못한 것일까요, 정책이 애초에 순수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시장미술과 아트마켓은 서로 상관없는 것일까요?

7. 합의되지 못하는 순수성 논쟁들

예술의 순수성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예술성, 영리성, 대중성, 정치성, 자율성 등이 언급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순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은 그것을 주장하는 시대 상황과 주체들의 철학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선택되고, 완전히 다른 입장, 서로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사회참여적 예술과 대중 속에서 예술이 향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완전히 상반되는 입장으로 어용/참여, 대중/통속 등의 용어가 사용됩니다. 송인재·평칭(2023)⁴⁰⁾은 1896~1942년 한국 잡지에 등장한 ‘예술’이라는 말의 빈도와 함께 사용된 말에 대한 분석을 통해, “1930년대 이후에는 예술의 정치화가 사회주의나 민족주의 운동이 아닌 식민통치에 협력하는 예술 담론이 강하게 발견되었다”고 파악한 <정치성>은 분명 순수성의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896~1942년 한국 잡지에 등장한 ‘예술’의 빈도>
(출처 : 송인재·평칭, 2018)

40) 근대 한국 ‘예술’ 개념의 전개 양상 (송인재·평칭, 어문논집, 민족어문학회, 2023.08.)

반면 송현민(2019)⁴¹⁾은 “1962년에 군사정권이 “사회정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진행된 국민개창운동에 참여한 이들이 대부분 상아탑의 음악대학 교수들이자 대중음악 장의 대척점에 있는 이들이었는데,... 그들의 참여는 유행가(=대중음악)에 대한 불편했던 감정들을, 자신들의 ‘순수’음악을 통해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성을 단순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1960년대 문화예술계에서 ‘정화’란 곧 ‘우리 것 찾기’와 이어지기도 했고, ‘건전’이라는 말이 ‘순수’의 또 다른 이름으로 활약했던 점에서도, 정치적 또는 사회참여적 예술의 순수성에 대한 평가가 뒤섞이게 됩니다.

영리성과 정치성은 창작에 필요한 자원 확보 성공 여부로 귀결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창작의 자율성과 연결되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존재이면서 생태적 존재인 예술가가 생계를 유지하며 사회 안에서 역할을 담당하려면 100% 영리성/정치성에서 자유롭고 100% 자율성을 갖춘 상태는 상정할 수 없습니다. “순수 음악’의 미적인 자율성 - 모든 예술이 열망한 조건”을 탐구하는 정우진(2018)⁴²⁾은 바흐의 <마태 수난곡>을 예로 듭니다.

“가령 바흐의 <마태 수난곡>(1727)은 자율성을 갖고 있는가? 교회에서 초연된 만큼, 원래 작곡 목적이 실제 예배를 위한 봉사에 있다는 점에서 “자율적이지 않았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곡을 오늘날 우리가 콘서트홀이나 오디오로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 듣는다는 점에서 “자율적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정우진, 2018)

예술사회학자 한준(2024)⁴³⁾ 교수는 해방 후 우리나라 예술계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정리하면서 “예술계는 자율성도 필요하지만 제대로 유지되고 작동하려면 물적 기반이 필요하다. 자율성과 물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개별 후원자보다는 시장 체계이다.....한국 예술계가 자율적 발전을 통해 뛰어난 성과를 거두게 된 시점은 1980년대 후반 시작된 민주화와 지속된 경제발전으로 자율성과 물적 기반을 모두 갖추게 된 이후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대중예술과 소위 고급 또는 순수예술과의 관계는 비판적 문화연구자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의 『문화란 무엇인가(Culture by Terry Eagleton)』⁴⁴⁾를 참조할 만합니다. 이글턴은 순수/고급예술을 지지했을 법한 세 명의 학자들의 의외의 발언들과 관점을 소개합니다. 최초의 근대적 보수주의자로 평가되는 영국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⁴⁵⁾는 “엘리트 문화의 보존을 원하지만 그 문화가 살아남으려면 대중의 경건함에 반응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p.117) 독일 철학자 헤르더⁴⁶⁾는 그 당시의 민중문화가 호메로스, 소포클레스, 셰익스피어의 예술을 키워냈다고 믿었고, 민중문화를 개별 예술가들이 영감을 끌어오는 집단 무의식처럼 여겼습니다.(p.113) 모더니즘 미학을 추구한 시인 T. S. 엘리엇(Thomas Stearns Eliot)⁴⁷⁾은 “문화의 운동은 각각의 계급이 다른 계급에 자양분을 공급해주면서 일종의 순환을 형성하는 것이며, 높은 수준의 문화를 유지하는 것은 단지 그 문화를 유지하는 계급에게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에 혜택을 준다”고 말했습니다.(p.119)

41) 정치, 검열, 심의 속의 순수음악 작곡가들 (송현민, 월간 객석, 2019.04.15.)

42) 순수 음악’의 미적인 자율성 - 모든 예술이 열망한 조건 (정우진, 2018.)

43) 『한국 예술계: 기원 · 발전 · 쟁점』 (한준 저, 역사공간, 2024)

44) 『문화란 무엇인가(Culture by Terry Eagleton)』 (테리 이글턴 저, 이강선 역, 문예출판사, 2021)

45)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 18세기 말 아일랜드 더블린 출신의 영국의 정치인, 철학자. 최초의 근대적 보수주의자

46) 요한 고트프리트 헤르더(Johann Gottfried Herder). 18세기 독일의 '슈투름 운트 드랑(Strum und Drang)' 시대의 대표적 사상가이며 신학자·문예비평가

47) T. S. 엘리엇(Thomas Stearns Eliot). 20세기 초 시인, 극작가, 문학 비평가, 노벨문학상 수상자. 낭만주의의 모더니즘 미학을 추구. 미국 태생으로 영국으로 귀화했음.

조윤범(2010)⁴⁸⁾은 “비발디의 ‘사계’ 대중음악인가, 클래식음악인가”는 질문을 던지면서 “18세기의 고전파 음악은 이전 음악보다 더 ‘대중적’인 음악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나아가 “쇼스타코비치가 행사용으로 작곡한 ‘페스티벌 서곡’은 순수음악이 아닌가? 또 대중음악 작곡가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작곡하는가? 영화음악이나 게임 음악은 어떤 범주에 넣어야 하는가? 스타크래프트의 웅장한 사운드트랙은 대중음악인가, 클래식 음악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분야가 오늘날 수요와 공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음악인데 소위 순수 음악가들에게 이를 멀리하게 할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렇게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의 차이를 부정했던 학자들의 인식과 달리, 선량한 정책의 목적이나 예술가들의 차별화 전략으로 “**차이를 식별하려는 행위discrimination**” 자체가 순수라는 말 때문에 그 의도를 의심받게 됩니다. “**식별 행위는 배제를 포함할 뿐 아니라, 우월한 위치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반드시 내포하는 것으로, 평등주의 정신을 가진 이들에게는 모욕적으로 보이기**”(테리 이글턴 **위의 책 p.197**)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차이 만들기는 예술의 혁신을 통해 이루어져야지, 정치적 권위나 예술계에 공고하게 구축된 제도에 근거해서 맹목적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순수하지 못합니다. 기존의 제도를 통해 공고화된 예술 권력이 정통 미학과 매체를 활용하지 않는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순수하지 않은 것으로 비판하여 도태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순수성을 내세우는 주장을 무조건 지지하기 보다는 비판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신의 교수(2004)⁴⁹⁾는 “기초예술은 모더니즘적 장르 개념이 아니다”며 “지금의 위기는 기초예술의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미술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제도적 질서’의 위기”라고 진단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예술이 중요하다면, 그것이 순수한 그 무엇이어서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또 그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는 데 있을 것이다”며 예술적 혁신을 통해 순수함을 증명해야 함을 역설합니다.**

작가의 전업성, 전문성이 순수예술 판정 기준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특히 예술가의 지위 확보 차원에서는 중요한 이슈이지만 예술계의 역량 강화에 반드시 이바지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순수예술지원 정책에서 예술생태계의 성장과 예술인의 지위 확보 논점이 서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작가중심의 순수예술 논쟁은 예술계 내부의 혁신이나 헤게모니 변동에 따른 새로운 사조의 출현 뿐만 아니라 기술과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창작과 유통의 방식이 바뀔 때 기존의 전례에서 벗어나는 사례를 순수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도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밤 세워 얘기해도 모자랄 주제라,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예술계 안에 엄연히 존재하는, 국악과 서양클래식 음악, 또는 서양식 장르 예술과 우리 전통예술 사이의 순수성 위계 관념에 대해서는 예술사회학자 한준(2024) 교수의 글을 인용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예술 분야 간의 문화적 위계에는 진지한 예술과 대중적 예술이라는 보편적 위계의 속에 민족적 경계 즉 서구의 예술과 한국의 전통예술이라는 특수한 축이 추가되었다.”(p.23)...문화통치 시기 일제는 조선의 민속예술에 대한 체계적 자료수집과 연구를 수행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들의 문화적 위계를 조선에 이식시키려 했기 때문에 전통과 민속예술은 문화적 위계의 최하층에 편입되는 운명을 맞았다. 해방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본으로부터 미국으로 문화적 위계의 준거점이 이동한 것에 불과했다....서구의 진지한 예술이 가장 상위를

차지하고, 서구 대중예술이 그 다음, 그리고 전통 및 민속 예술이 가장 하위에 놓인 문화적 위계가 바뀐 계기는 1960~1970년대 권위주의 정부의 민족문화 지원과 1970~1980년대 대중의 고조된 민족적 관심에 의해 주어졌다”(한준, 2024. (p.313-314)

최근 크리스티가 AI로 만든 예술 작품만을 판매하는 첫 경매 ‘증강 지능(Augmented Intelligence)’을 뉴욕 크리스티 록펠러 센터 갤러리에서 연다고 발표한 후, 이를 취소하라는 공개서한에 서명한 사람이 하루에 3400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반대자들은 AI가 기존 예술가들의 작품을 허락 없이 학습에 사용했다는 것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⁵⁰⁾. 인간의 예술 창작 행위 중에서 순수한 것과 순수하지 않은 것을 골라내는 논쟁에 에너지를 쓰기 보다는, 차라리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기계와 인공지능에 의한 예술창작에 대비하여 인간의 예술창작활동을 지키는 논리로서 <순수예술>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는데 쓰는 것이 더 필요한 듯 합니다.

순수예술 논쟁에서 거론되는 기준들과 쟁점들			
기준	순수한 상태 ⁵¹⁾	순수하지 못한 상태	쟁점
예술성	미적 가치를 위한 창작 (순수(Fine, Fure) 예술, 탐미주의)	미적 가치 외 교양 등을 위한 창작 (취미 예술, 문인화 등)	탐미주의는 제한적 사조 예술성이 높지 않아도 감동을 주는 예술이 많음
전문성	예술적 기량이 높음 (고급(High)예술, 순수(Fine)예술)	예술적 기량이 낮음 (기예, 저급예술, 아마추어 예술, 민화)	민화나 아마추어 창작도 예술성을 인정받기도 함
영리성	영리적 목적 없음 (순수(Fine)예술 , 취미 예술)	영리 추구형 창작 (상업예술, 시장예술, 문화산업)	예술가의 생계를 위해 영리 추구는 필요함
대중성	대중 취향에 영합하지 않음 (순수(Fine)예술 , 고급예술)	대중의 취향에 영합하여 인기 추구 (통속예술, 대중예술, 패션)	인기추구는 더 많은 관객 확보 노력이기도 함
정치성	대중들이 즐기는 예술 (동시대 예술, 대중예술, 여향문학)	대중과 유리된 예술 (궁정예술, 귀족예술)	민주주의 시대 순수성이란 대중과 함께 해야 함
	정치적 의도 없음 (순수(Fine)예술 , 목가주의)	정치적 의도 또는 동원된 창작 (어용예술, 참여예술, 선동예술, 민중예술, 헌정예술)	예술가의 자발적 정치참여와 권력에 의한 동원의 경우 순수성이 다름
자율성	사회문제 비판 및 해결 (참여예술, 리얼리즘, 저항문학, 민중예술, 사회적 예술)	사회문제에 무심함 (순수예술, 목가주의)	사회참여를 예술 본연의 가치로 보기도 함
	예술가의 자유 의지로 창작 (독립예술)	누군가의 의뢰로 창작/검열된 예술 (궁정예술, 공공예술, 상업예술, 건전예술)	권력에 의한 의뢰와 자본에 의한 의뢰의 순수성 차이 없음
정통성	예술가의 자유 의지로 창작 (독립예술)	틀을 깨는, 장르 파괴적 미학 추구 (전위예술, 융합예술, 다원예술)	틀을 깨는 비순수성이 예술의 진보에 기여
활용성	제도화된 장르별 미학 준수 (장르예술, 고전예술, 정통예술)	예술의 응용과 활용에 집중 (공예, 응용예술, 산업예술, 디자인)	응용예술도 실용성 외 미적 가치도 중시함
전업성	예술 창작에 집중 (기초예술, 핵심(core)예술)	예술의 응용과 활용에 집중 (공예, 응용예술, 산업예술, 디자인)	생활예술 확산은 예술시장 확장에도 기여
매체성	직업적 예술 창작 (전문예술, 전업예술)	비직업적 예술 창작 (취미예술, 생활예술, 딜레탕트)	전업성이 작품성과 순수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님
인간성	제도화된 공간에서 예술 감상 (제도화된 예술, 장르예술)	새로운 매체와 공간에서 전파/복제 (대중예술, 매체예술, 거리예술)	새로운 창작과 전파 방식이 예술 확산과 혁신에 기여
	인간의 창작 (예술)	기계와 Ai의 창작 (생성형 예술, 기계 예술)	갈수록 구별이 불가능함 새로운 관심 필요

48) 비발디의 ‘사계’ 대중음악인가, 클래식음악인가 (조윤범, 신동아, 2010.03.04.)
49) 기초예술은 모더니즘적 장르 개념이 아니다 - 기초예술의 다양한 사회적 경로 개발을 위해 (박신의, 문화예술 2004.5월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4)

50) “크리스티, AI 미술품 경매 발표…반대 여론도 극심 (임대준, AI타임스, 2025.2.10.) 참조

8. 순수함에 이르는 세 가지 방법 : 빼기, 더하기, 나누기⁵²⁾

우리는 “순수하다”는 말을 인식되는 존재의 상태에 붙이지만 사실은 인식하는 존재가 느끼는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순수함이란 인식되는 존재 상태의 순수함뿐만 아니라, 인식하는 자의 순수함에 대한 기대치, 그 수준까지 감각하고 구별해 낼 수 있는 능력, 그에 기반한 감각 결과에 대한 반응, 그 반응에 대한 언어적 표현이 뒤섞인 것입니다. 인식되는 존재의 상태가 아무리 순수해도 인식하는 측이 그것을 순수하다고 느끼지 않거나, 못하거나,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순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놀이나 과학 수업으로 운동장 흙을 채로 쳐서 돌과 고운 모래를 분리해 본 사람이라면, 얻어진 모래의 “순수함”은 애초에 기대했던 순수함의 수준에 맞춰 선택된 체의 눈 크기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모래와 돌과 같이 생명이 없는 물질은 체의 기계적인 움직임에 의해 숨김없이 분류되어 그 순수함의 정도를 나타내지만, 인간 행동의 순수함은 말을 통해 서로 공유된 정보에 대비하여 일어난 현실이 그에 부합해야 확정됩니다. 즉 사회적 존재들이 느끼는 순수함이란 배신감 없는 의사소통 결과의 후련함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순수함을 추구하는 세 가지 접근법				
구분		빼기식 접근	더하기식 접근	나누기식 접근
사례	비순수 상태	혼합된 상태 (더러운 물)	기대한 성분의 순도가 낮은 상태 (산도 약한 식초)	배신감 드는 의사소통 (숨겨진 의도)
	순수한 상태	정제된 상태 (정수된 물, 증류된 술)	기대한 성분의 순도가 높은 상태 (산도 진한 식초)	후련한 의사 소통 (말한 대로 실행)
순수함에 이르는 방법		필터링 또는 증류 (희망하는 수준 만큼)	생명활동 증진 (재료 추가, 온도 조절 등)	완전한 대화 (말의 의미 공유, 숨김 없는 소통)
적용 대상		의식 없는 물리적 존재들의 혼합물	생명의 의지를 가진 생태적 주체의 산출물	사회적 존재들의 상호 커뮤니케이션

생명없는 혼합물에서 “물질의 순도”를 높이는 방법은 특정 요소를 제거하고 정제하는 것입니다. 수용자가 제거하고 싶어 하는 요소를 필터로 걸러내거나 에너지를 추가해서 날려버립니다. 정수기 필터로 물을 정화하거나, 알코올 증류를 통해 물을 떼어내고 술의 도수를 높이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빼기식 접근법입니다. 정수기가 몸에 필요한 미네랄까지 걸러내버리는 문제처럼, 이런 빼기식 접근은 때로 순수한 가치를 강화하기보다 다양성 축소 등 본질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수함에 이르는 또 다른 방법은 원하는 성분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 그 주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는 방식입니다. 초산균(Acetobacter)이 발효를 통해 알코올을 초산으로 변환하여 얻어지는 식초의 순도를 높이려면 불순물을 제거하는 대신, 초산균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탄수화물 같은 에너지원(기질)을 추가 공급해야 한다. 이런 더하기 식 순도 높이기가 필요한 것은 초산균이 생명체이며 삶의 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생명체가 자연에서 외계 환경과 물질을 교환하며 번성과 번식이라는 목표를 향해 삶을 영위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자신과 외계의 경계를 허무는, “순수함을 따질

수 없는 혼존(混存)의 상태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그 삶의 산물의 순도여야지, 그의 삶 과정 자체가 순도 높기를 따지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것은 생명체에게 죽은 듯이 살아서 순수한 무언가를 만들어 내라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산출물의 순도를 높이는 방법은 무언가를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기적인 생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조건을 더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예술 또한 그것을 창작하는 예술가의 삶이 생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순수할 수 없습니다. 그의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창작 성과물의 순수성을 빼기식으로 접근하면 그것은 받아들이는 자의 가치와 취향에 맞춰 선택되는, 제한적으로 순수한 것일 뿐입니다. 예술가와 예술이 만나서 더 왕성한 활동을 통해 순도를 높이도록 하는, 소위 더하기식 접근에 필요한 것은 자원과 다양성을 제공할 넓은 시장, 그리고 주체의 활동성을 높일 자율성입니다.

단순히 분류하고 골라내는 것을 잘 해서 얻을 수 있는 순수함은 물리적인 순수함에 한정됩니다. 인간이 상대방의 사회적 행위에 대해서 느끼는 순수함은 커뮤니케이션 결과의 명백함, 또는 후련함과 관계됩니다. 사회적 행위의 결과는 눈 앞에 벌어진 현상의 이면에 사전에 서로 공유한 것 외에 숨겨진 의도가 없었다는 진실을 확보할 때 순수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처럼 사회적 존재로서 의사소통 후 순수함을 경험하려면 서로 대화에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공유해야 하고, 의도적으로 숨긴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함께 나눠야 순수해집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예술의 순수함은 무엇이며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까요? 불순물을 제거하여 정제하는 과정일까요, 아니면 특정한 요소를 강화하여 본질을 부각하는 과정일까요? 이 질문이 단순히 예술가의 옹명정진으로 다다를 수 있는 순수한 아름다움에 대한 미학적 논쟁을 넘어서는 이유는, 그 자체로 사회적 행위인 창작과 발표 과정에서 무엇을 강제로 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가치 선택의 문제로 정치적인 논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술작품의 발표와 감상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므로, 작품 아래 숨겨진, 또는 미처 공유하지 못했던 의도가 나중에 밝혀진다면 그것은 불순한 것으로서, 배신감에 치를 떠는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술이라고 감상한 예술의 이면에 본인이 기대했고 서로 말로 공유했다고 생각하는 것 이 외의 것, 즉 예술적 사기에 해당하는 작품 수준, 작가의 명예욕과 금전욕, 또는 나를 지배하겠다는 정치적 욕망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때 그 불순함을 더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런 배신감은 사실 예술 행위자의 행위 자체가 불순해서 생긴 것이라기 보다는 수용자 스스로 만든 것이 대부분입니다. 애당초 앤디 워홀이 작품을 팔아서 돈 벌겠다고 나섰는데 그를 순수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사람의 “순수성”이란 애초에 앤디 워홀이 생각하는 순수성과 다른 것이므로 그에게 비난으로 작용하지도 못합니다. 미적 순수성 차원에서 보더라도, 아마추어 수준의 그림 그리기 행위를 합의했고 그 수준의 그림 결과를 받아 들였다면 그 그림의 수준이 낮다고 굳이 “순수하지 않다”고 비난까지 퍼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술적 가치만을 추구했다는 사람이 느끼는 예술적 배신감이란 애당초 그 예술의 미적 수준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비평가 또는 경매 주선인)에게 의지했다가 그의 판단이 의도적인 거짓이거나 보편적이지 못한 평가였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느끼는 것입니다. 이 또한 그 작품이나 예술가를 순수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웅색하게 느껴야 할 상황입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예술적 가치는 남에게 의탁하고 그 밑에 작품의 소장자로 얻어질 경제적 가치나 명성을 추구했던 자신의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드러나서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불순함이 주는 배신감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서로 말로 주고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51) 입장에 따라 같은 상황을 다르게 지칭하거나 같은 용어로 다른 평가를 담고 있기도 함

52) 순수함에 이르기 위한 물리적/생체적/사회적 존재로서 접근법 : 빼기/더하기/나누기 (김해보, 2025) 참조

아마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상식이 서로 달라서 생겼을 가능성도 큼니다. 대표적으로 예술가도 먹고 살아가야 하고 세상 속에서 창작하는 “생물학적이며 사회적인 존재”라는 상식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적 예술가라면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을 예술로 벌어야 하고, 공공정책의 지원 조건 중에도 소위 “자생력”이라는 명목으로 경제적 가치 창출이 요구됩니다. 오세근(2004)⁵³ 교수는 “예술은 순수해야 하므로 돈을 벌 필요가 없다거나, 배가 고파야 우수한 작품이 나온다는 식의 해괴한 논리를 단호히 거부한다.”예술산업’은 문민정부 이후 강조해온 문화산업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서, 예술 작품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원활한 유통구조를 만드는 것이 골자”라고 역설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합의된 상식이라면 예술가가 생계를 위해 돈이 필요하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사랑받고 세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는 것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당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각의 차이와 일부 동의하더라도 기대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술가 스스로 선택한 사회참여적 예술이나 공공정책이 기획한 공공예술을 통해 사회변화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예술가의 의도를 “정치적”이어서 “순수하지 못하다”고 비판한다면 지금 전 세계 거의 대부분 도시의 문화정책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이 예술창작을 지원하는 공공정책의 목표인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산업적 프로세스로 예술이 전파되는 것 자체를 “순수하지 못하다”고 비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애당초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가 달성되지 못하는 것을 파악하고 막지 못한 전략적 실패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영리를 추구하거나 대중의 인기애에 영합하고 사회를 바꾸는 권력으로 치달아 주객이 전도될 때 그것을 순수하지 못하다고 비판할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정도의 문제이지 애당초 그런 지향점이 완전히 소거된 순수예술지상주의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순수한 예술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때 보다 우리나라 예술가들의 해외 공콜 입상, 우수한 예술상 수상, 글로벌 대중음악 차트 점령, 문화콘텐츠로서 최고 인기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으니 예술이 순수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순수예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술을 지원하는 “순수한 예술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럼 예술계가 예술정책에 바라는 순수성은 무엇일까요? 위의 논의에 비추 본다면 정책의 말이 숨김이 없고 명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나누기를 통한 순수성 확보 전략을 취하는 것입니다. 순수예술을 지원한다고 표방하면서 그 아래 숨은 의도는 세계에 우리나라 문화의 우수성을 자랑할 소위 “K-아트”를 키우겠다는 것이라면 순수하다고 느끼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술계에 신선한 충격을 줄 독창적이고 새로운 예술을 창작하라고 지원해 놓고는 티켓 판매가 부진하다며 숨겨놓았던 의도를 얘기하는 것은 순수하다고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앞서 살펴본 바를 참조해서 예술의 순수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정책이 공적가치로 달성하고 싶어 하는 바를 처음부터 숨기지 말고 명확하게 내놓고 설명한다면 그 순수성을 인정받을 것입니다.

“순수하게 예술이 잘 되기를 바라는 정책”이 순수한 예술정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예술을 위하는 정책은 무엇을 살리려고 애써야 할까요? 예술? 예술가? 예술계? 앞서 살펴본 예술지상주의 관점에서의 순수예술 지원정책이라면 그것을 위해 예술가조차도 수단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극한 예술의 가치 달성을 위해 예술가 본인이나 고용한 장인의 생명까지도 가볍게 여기는 예술지상주의자들의 이야기는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술정책에서 예술가도 빼내야 정치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빼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진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복지정책을

53) 팬잡은 삶의 기준으로서 기초예술 (오세근, 문화예술 2004년 12월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4)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진영도 있구요. 그런데 정말 예술가를 살리는 예술은 불순한가요? 그것은 시간 축의 크기를 어디까지 놓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길게 보면 예술가가 사는 게 예술계가 사는 것이고, 예술계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게 예술이 진보하는 길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축으로 봐서 당장 예술과 예술가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예술가를 선택해야지 않을까요? 정책은 사람의 삶을 위한 것이니까요. 설사 예술만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틀을 깨고 전복시킬 만한 혁신을 제시해야 할 예술계가 순수와 기초라는 정책용어를 집어들고서 대중, 상업, 실용 등을 그 대척점으로 주변화시키려는 것은, 위계 없음이 특징인 네트워크 시대에 적절한 선택은 아닌 듯 합니다.

정책이 주는 배신감은 “OO예술 지원”이라는 말로 시행한 정책이 사실은 궁극적 목적이 표방된 것이 아닐 때 느끼는 것입니다. “순수예술지원” 정책은 순수하게 예술 창작활동을 더 왕성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나 시민 교육, 또는 국위 선양 등의 다른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때 정책의 순수함이 비난받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순수예술 지원을 표방하는 정책이 순수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말의 뜻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 명확한 말로 표현된 정책의 목표가 순수예술 진흥 이면에 경제적 성취, 시민 문화향유, 국위 선양 등 여러 공공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사전에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의 말을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책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밑에 담고 있는, 예술만을 순수하게 위하지는 않는, 의도를 어느 정도는 감안하여 순수성 판단 기준을 조절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배분되는 공적 자원으로서 예산과 함께 관심과 지지를 표방하는 말의 자원도 적절히 배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말이 곧 힘이기 때문입니다.

9. 예술창작과 문화산업 진흥 법령에 이미 들어있는 정답

예술의 다양한 사회적 경로를 열어야 한다는 박신의(2004) 교수의 주장이나, 합리적이고 원활한 예술 유통구조로서 예술산업의 진흥을 원하는 오세근(2004) 교수의 주장은 소위 순수예술과 시장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테리 이글턴도 『문화란 무엇인가(Culture by Terry Eagleton)』(2021)에서 시장과 예술의 양면적 관계를 서술합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보장하기도 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포용성을 시장의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상품보다 더 관대하고 포용적인 것은 없다. 상품은 살 수단을 가지고만 있다면 지위, 계급, 인종, 성별의 구별을 혐오하면서 누구에게나 바싹 파고들기 때문이다.(p.52)...만약 현 인류가 역사상 처음으로 완벽하게 혼종될 기회가 있다면, 그 주된 원인으로서는 자본주의가 있다...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누군가의 노동력을 구매하는 데 문화적 배경은 전혀 상관없이 때문이다(p.198-199)”

하지만 동시에 예술을 억압하는 시장의 부정적인 면을 강하게 묘사합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기이한 아이러니는 대중문화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를 문화 자체의 힘이 만든 현상으로 여기는 일도 더 늘어나지만 실제로 문화의 자율적인 영역은 더욱더 줄어들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의 영향력이 더 늘어날수록 문화는 그것이 가진 규범적 의미에서 대개는 문화에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목표를 가진 글로벌 체제를 더 강화하게 된다.(p.191-192)...이른바 ‘창조’산업의 역할, 새로운 문화적 기술이 가진 힘—기호·이미지·브랜드·아이콘·스펙터클·라이프 스타일·판타지·디자인·광고의 두드러진 역할—이 모든 것은 자본주의의 ‘미학적’

형식이 등장했음을 증명해준다...미학으로 변모한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오히려 자본주의가 한층 더 가혹하게 도구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p.192)”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시장을 견제하면서 공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대한 견제력을 잃지 않기 위해 국가와 개인이 합세하기도 하고 또한 어느 한쪽이 시장과 너무 긴밀히 결탁하지도 않게 서로를 견제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 견제력이 예술이 만들어 내는 돈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진흥과 순수예술진흥을 무조건 대척점에 놓는 것이 예술을 위한는 순수한 정책이 취할 입장이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대부분의 문화예술관련 법령들에서는 문화산업과 예술의 관계를 공존의 관계로 서술한 것이 확인됩니다. 모든 문화산업 관련 법령에서도 관련 장르의 창작 지원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대부분의 순수예술장르 진흥법에서도 예술창작 활동과 함께 해당 분야 산업 진흥을 주요시책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르 특성상 산업진흥을 직접 명시하지 않더라도 상품의 유통을 지원하는 등의 산업적 지원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예술을 지원하기 위해 따로 법을 만들거나 순수한 영역을 정의하여 예술을 고립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법에 따라서 예술창작을 지원하고 산업과 연결하여 예술 유통경로를 확대하는 것이 더 순수해 보입니다. 예술을 골라내서 “순수예술”이 되게 할 것이 아니라, 정책이 자기가 말한 대로 실천하여 “순수한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 법령에서 예술지원과 산업진흥 관련 조항 포함 여부 비교					
법 령	제정 년도	정의에 예술 및 산업 포함 여부		지원 및 진흥시책	
		예술(세부장르)	산업	창작지원	산업진흥
문화예술진흥법	1972.08.14	문화예술	문화산업	○	○
공연법	1964.12.30	공연		○	○
국악진흥법	2023.07.25	국악	국악문화산업	○	○
문학진흥법	2016.02.03	문학		○	△ ⁵⁴⁾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2012.02.17	만화	만화산업	○	○
미술진흥법	2023.07.25	미술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06.04.28	영화	영화산업	○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2018.12.11.	서예		○	X
예술인복지법	2011.11.17	문화예술, 예술인		○	X
예술인권리보장법	2021.09.24	예술활동, 예술인, 예술사업자		○	X
장애예술인지원법	2021.09.24	장애예술인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06.04.28	음악	음악산업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999.02.08		문화산업, 문화상품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014.01.28		대중문화예술산업	△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2015.05.18	공예	공예문화산업	○	○
디자인보호법	1961.12.31	디자인		△	△
산업디자인진흥법	1977.12.31	산업디자인		○	○
저작권법	1957.01.28	저작물, 저작자		△	△
문화기본법	2013.12.30	문화		○	○
지역문화진흥법	2014.01.28	문화예술, 지역문화, 생활문화, 문화지구		○	X
문화예술교육지원법	2005.12.29	문화예술교육		△	X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6.02.03	인문, 인문학, 인문정신문화		X	X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2017.03.21	국제문화교류		X	X
국가유산기본법	2023.05.16	국가유산, 문화유산		X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962.01.10	문화유산		X	X

10. 예술의 에너지가 말의 힘을 빌어 일로 바뀔 수 있는 조건⁵⁵⁾

이 글의 목적이 <순수-기초 예술 지원정책에서의 적절한 용어 선택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예술 앞뒤로 붙는 말들의 정책적 의미를 깊게 탐구하는 것>이었던 점을 상기하면서 결론을 맺어봅시다.

우선 말의 힘을 생각하게 하는 최근 두 가지 기사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멕시코만의 이름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꾼 소동입니다⁵⁶⁾. 16세기부터 사용된 말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바꾸는 것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미국 연방 내 지명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지리조사국(USGS) 산하 지명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명칭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지역에서의 사용과 수용”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말이 미국 안에서 힘을 발휘하는 조건은 그가 올라서 있는 행정 제도이겠지만, 멕시코까지 그 힘이 미치려면 그것을 지원하는 무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기사는 중국의 IT 기업 텐센트가 직원들에 선물로 사탕수수를 선물한 해프닝에 대한 것입니다⁵⁷⁾. 광둥어로 ‘덤 과 록 제’는 ‘사탕수수보다 곧다’는 뜻으로 ‘모든 일이 순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설날 선물로 제공한 것이랍니다. 이 선물을 받고 직원들이 기분 좋았다면, 돈으로 말에 새로운 힘을 보탬 격입니다. 이처럼 말에는 힘이 있고, 그것이 힘을 발휘하게 하는 조건도 필요합니다. 정책언어가 힘을 발휘하게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특히 예술을 지원하는 언어가 예술의 에너지를 사회를 바꾸는 힘으로 작용하게 하려면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예술은 그 가치에 잠재된 에너지로 사람과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술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일로 바뀌는 데는 그 에너지를 이끄는 “제약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약 조건을 통해 동원된 공공자원과 예술의 에너지가 결합하여 어떤 변화를 만드는 일이 되는 과정이 카우푸만이 설명한 “제약-일 순환(constraint work cycle)”⁵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별이 자기 에너지를 폭발시키면서 화려한 장관을 연출하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돌아 가지만 우주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술가의 머리 속에 완전히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폭발해서 자기 공간 안에서 이를 완전히 자유롭게 표현한다 한들 그것은 사회적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물리학자 카우푸만의 고찰에 따르면, 에너지가 일로 바뀌려면 그 에너지를 특정한 곳으로 이끄는 제약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물리적 존재들의 자유도를 제한합니다. 카우푸만은 생명을 가진 존재는 제약조건과 자유도 사이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재설정 해간다고 설명합니다. 예술가가 사회적 존재로서 완전히 독립적일 수 없다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다면, 자유도를 일부 제한해야 만 “사회적”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술가들에게 자율성은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수예술 논쟁에서 순수성을 판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자유로운 존재가 사회 안에 있을까요? 우리가 생명체로서 자연과 소통하며 삶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화와 규범에 얽매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 존재 상태 자체가 자유로운 상태일 리가 없습니다.

54) 법령 상 주요 시책 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를 서술한 조항에 직접적으로 **산업의 진흥시책을 명시하지 않고 작품유통지원, 해외 진출 지원, 마케팅지원, 고용확대 등 산업활동 관련 사항에 대한 일부 지원을 언급한 경우 △로 분류함
55) 예술의 에너지를 사회적 일로 바꾸는 정책의 언어 선택 전략 (김해보, 2025) 참조
56)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트럼프 구상, 실현 가능성 따져봤더니 (양지윤, 이데일리, 2025.01.25.) 참조
57) 직원에게 설날 선물로 이걸 준다고?...中, 이게 축복과 재물 상징 ‘감눌’ (서정명, 서울경제, 2025.01.20.) 참조
58) 『무질서가 만든 질서(A WORLD BEYOND PHYSICS)』 (스튜어트 A. 카우프만 저, 김희봉 역, 알에이치코리아, 2021) 참조



<출처 : 제임스웹 망원경에 '별의 화려한 죽음' 포착 (연합뉴스, 2023.8.4.)>

외부에서 주입되거나 동원된 비자발적 동기에서 행위를 시작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한 어떤 실용적 기능도 추구하지 않는, 완전히 “순수한” 예술은 아무 목적 없이 “놀이”로서 창작한 것입니다. 예술의 본성을 놀이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현실에서 그런 존재를 찾아본다면, 완전히 자유롭게 노는 아이들이 그리는 그림이나 노래, 춤 등이 그에 해당 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주는 자원을 소비하며 어떤 기능도 하지 않고 세상에 존재하기만 해도 사랑받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른이 되면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순수하지 않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가 살아가는데 소비하는 자원에 부합하는 수준의 기능을 하기를 요구받게 됩니다. 그 기능, 즉 일은 그가 선택해서 일하는 환경의 제약 조건을 통해 발현됩니다. 그의 에너지는 일로 바뀌고 그는 그 일의 보상을 받아서 다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야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힘이 제약조건을 통해서 전달될 때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가 중에는 완전히 자유롭게 존재하다가 폭발하고 사그러드는 별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 힘으로 주위를 움직이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예술가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 자유도를 줄이는 제약조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작품 매매로 귀결되는 시장에서의 제약조건도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이라는 제약조건도 있고, 공공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공적인 가치를 발생시키는 제약조건도 있습니다. 이런 제약조건은 화이트박스나 블랙박스 같은 인프라와 제도, 그리고 말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사회적 존재일 수 밖에 없는 예술이나 예술가는 사회 안에서 일을 해야 사회적으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생명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 안에서 자유도를 제약받고 일을 하며 다시 사회를 자기 의지대로 재구성합니다. 이처럼 예술의 본질적 가치가 세상을 바꾸는 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자기 공간 안에서만 완전히 순수하고 자유롭게 노는 아이가 아니라, 관객과 규칙이 있는 “판” 위에서 노는 잼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 판을 깔고 예술가를 판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정책의 언어가 하는 일, 즉 제약조건 만들기입니다.

일을 하게 만드는 말의 집합으로서, 정책의 보다 효율적인 언어선택 전략은 무엇일까요? 정책은 말로써 동원하는 공공 자원의 에너지를 일로 바꾸는 “제약조건”을 만듭니다. “OO 예술 ◇◇”정책을 예를 들면, “순수 예술 진흥”과 같이 예술의 앞뒤로 붙이는 정책 언어는 예술이 공공자원의 에너지를 얻어서 그 본연의 가치를 일로 바꾸는데 필요한 제약조건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앞의 OO는 공공정책의 자원을

할당할 대상을 골라 내는데 쓰입니다. 공공, 사회적, 순수, 융합, K-, 등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말들이고, 심지어 “문화예술”처럼 “문화-”도 예술 앞에 붙어서 예술이 문화정책의 장 안에서 공공재로서 다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뒤의 ◇◇는 그 정책활동을 통해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지를 표방하는 데 쓰입니다. 진흥, 활성화, 확산, 교육, 산업화, 연계, 보급, 보전 등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말입니다. 물론 규제를 지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로써 뭔가 일어나게 만드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못하게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술을 위한 순수한 예술정책이라면, 박신의(2004) 교수의 기초예술 진흥 방안 주장처럼 예술의 활동 채널을 넓혀주는 말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뜻 안에서 예술과 예술가를 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숨겨진 의도 없이 소통의 후련함이 주는 순수함을 느끼려면, 말의 뜻을 명확하게 하고, 그에 맞춰서 성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예술의 자유로운 창작활동 지원, 예술의 사회적 가치 발현, 예술과 기술의 융합, 예술을 활용한 공공 프로젝트와 같이 말입니다.

예술 자체가 본질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될 수 없는데, 예술 앞에 OO을 붙이면 그 논쟁적인 예술의 개념을 더 정확하게 정의해서 해당 정책의 명확한 대상을 골라내는 과정이 더 많은 논쟁의 연속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책 대상을 골라내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 그것으로 ◇◇하려고 했던 뒤의 행위에 쓸 에너지가 소진되거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모호하게 이것저것을 다 하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즉, 예술 앞에 붙여서 뭔가를 골라내는 말보다 뒤에 붙여서 실천의 방향을 명확히 하는 말에 정책적 의미를 더 크게 두는 것이 말의 힘의 빌어서 예술의 가치가 일을 하는데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언어 선택 전략입니다.

결론적으로, 순수예술을 위한 순수한 예술 정책이라면 그 지원이 되는 예술은 넓게 정의하고 보다 넓은 가치 확산 채널을 만들 수 있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술의 에너지를 사회적인 일로 이끌어 “제약-일 순환(constraint work cycle)”을 만드는 것이 정책 언어가 만드는 “예술이 놀 판”입니다. 그 판에서 노는 예술의 순수함 중 무엇을 지향하든지 간에 그것을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와 나누기 방식으로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위 기초예술이든 순수예술이든, Ai 예술이 판치는 지금은, 인간의 예술을 공공정책이 소중히 지켜 내야 할 때입니다.

※ 이슈페이퍼 내용은 작성자의 견해일 뿐 공식입장이 아님.

※ 본 이슈페이퍼 본문에 인용된 자료들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돕기 위해 분석에 사용된 기사들, 보고서 원본, 기초분석 자료와 특히 문화관련 법령을 비교분석한 별첨 보고서가 문화+정책 정보서비스 텔레그램 이슈별 채널(예술 앞에 붙은 말들의 정책적 의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상세 자료 다운로드 : <https://t.me/fureart/81>

. “법령에 나타난 예술의 정의 및 문화산업과의 관계 비교” 다운로드 : <https://t.me/fureart/80>

※ 해당 주제별 정보스크랩 채널은 당분간 계속 관련자료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채널 구독 링크 : <https://t.me/+zbbBVdFe70s3Mjk1>)

『순수예술 논쟁과 정책의 용어 선택 전략』

_ 예술 앞뒤로 붙는 말들의 정책적 의미에 대하여

작성자: 김해보(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Vol. 2025-2

순수예술 논쟁과 정책의 용어 선택 전략

발 행 일 : 2025년 2월 12일

발 행 인 : 송형중

발 행 처 : 서울문화재단(www.sfac.or.kr)

기획·집필 : 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 김해보 전문위원

편 집 : 서울문화재단 미래전략팀

디 자 인 :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